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실천하라”



2011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 흉상에 예를 표하는 월주 대종사.



2012년 국회 초청으로 방한한 스웨덴 국회 부의장 등을 반기는 월주 대종사.



2013년 아프리카 케냐 농장 시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력을 하는 월주 대종사.



월주 대종사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 우물’ 완공 후 첫 물을 길어올려 손을 씻고 있다. 해당 우물은 이명박 前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기증했다.

